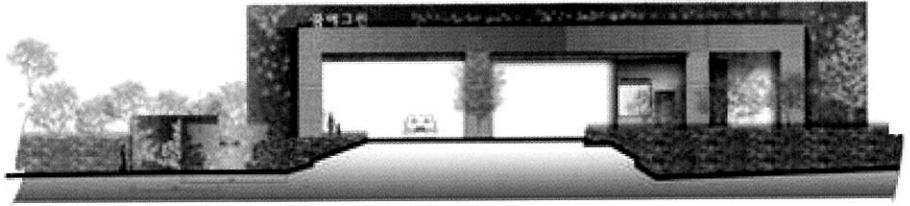


정원 가드닝 설계 시공 실무(3)



송 광 섭
이투데이 증권부장



조경의 멋을 한껏 살린다 '조명'



우리나라에서도 야외 파티 문화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명의 응용 분야는 갈수록 확대될 것이고, 비중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나무와 숲이 조명을 받았을 때의 모습을 연상해보면 그 아름다움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조명의 역할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조명 전문가로부터 들은 얘기가. 서울시내 곳곳에 야외 조명이 설치돼 있지만 너무 조도가 강하다는 말을 했다. 역사적인 유적들을 부각시키기 위해 서둘러 조명작업을 했지만 각각의 구조물에 맞게 조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은은한 불빛이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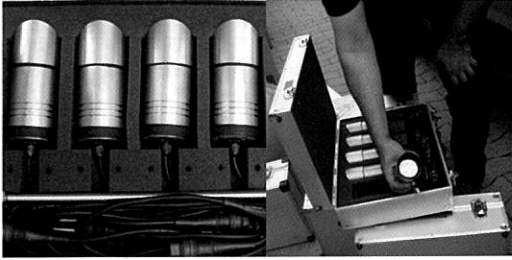
울리는 구조물이 있는가 하면 강하게 반사되는 조명이 더 나은 경우가 있다.

정원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안전을 고려한 측면이 있고, 어둠이 깔린 정원 분위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조명의 용도도 다양하다. 건물 투시등이 있고, 잔디등과 정원등, 수중등, 분수등, 바닥에 설치하는 지중등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하다.

조명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밝기와 온도, 조명의 종류 등을 고려해야 한다. LED의 경우 수명이 길고 적은 전력량으로 많은 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저전압 조명등은 전력소비량이 적고, 은은한 느낌을 준다.

연못 주변 등 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보통 12V나 24V의 제품을 사용한다. 요즘에는 혼자서도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조명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230V, 240V의 경우 전기기사에게 일임하는 게 좋다.

조명작업을 할 경우 지나치게 높은 조도는 오히려 눈의 피로도를 높여주고 주변 경관을 헤치기 때문에



적당한 조도를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가급적 조명을 받는 식물이나 조형물들이 은은한 빛을 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또 밤에 파티를 하는 경우 정원을 거니는 사람에게 조명 빛이 직접적으로 비치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높고 가는 나무는 10도 정도의 좁은 각도로 조명을 해주고, 넓은 나무는 좀더 넓은 각도를 사용해 시각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작은 조형물이나 가까이에 있는 식물을 비출 경우 상대적으로 조도가 약하고 불빛이 나가는 각도를 넓게 해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거리상 가까운 곳은 낮은 조도로, 먼 곳은 강한 조도로 해주는 게 시각적으로 보기 좋다.

서울시는 지난 2005년 여의도 윤중로 일대 뱃나무 636그루 아랫쪽에 조명 354개를 설치했다. 조명 색깔은 겨울엔 백색으로 화사한 분위기를, 여름과 가을에는 각각 초록과 노란빛으로 시원한 여름밤과 단풍 분위기를 더해준다.

정원에 생동감을...연못-분수



분수는 현대 조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무리 멋진 정원이라고 해도 분수나 물이 흐르는 시설물이 들어서 있지 않으면 삭막하기 그지 없다. 물소리와 수경시설은 시원스러움과 함께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여유로움을 더해준다. 물은 조경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천연 조경 재료다.

우선 조성할 연못의 넓이와 깊이 등을 미리 정해야 한다. 작업 과정에서 바닥 시공이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연못은 규모면에서 일정 크기가 돼야 한다. 대략적으로 10m² 이상은 돼야 한다. 이 보다 작아지면 물의 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물때가 낄 가능성이 높다.

물고기를 키우려면 수심이 1m 이상은 돼야 한다. 최소 1m 이상의 깊이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혹한 시에도 물고기가 얼어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장소는 가급적 빛이 들어오는 양지가 좋다. 위치는 높은 곳보다는 물이 고이는 낮은 곳이 적당하다. 집안 창문이나 출입구 쪽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이같이 연못을 구석진 곳이 아니라 눈에 잘 들어오는 개방형 공간에 두는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다. 연못을 만들 때는 관상용으로 할 것인지, 물고기가 사는 연못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또 생태학적 연못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

장 자연스런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특이한 식물도 함께 식재하는 게 좋다. 생태학적 연못 설치 시에는 반드시 수심 5cm 깊이의 늪지대와 물이 말라있거나 축축해진 상태의 가장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중 관상용 연못이 가장 많이 조성되고 있다.

물고기가 사는 연못은 일정 깊이 이상의 수심을 유지해야 하고 정화필터시설도 설치해준다. 수영이 가능한 연못은 수질정화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연못의 형태는 자연스런 분위기 연출을 위해 둥근 형태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둥근 형태의 연못을 만들 경우에는 주변 경계를 자연적으로 둘러치는 게 좋다.

방수처리에는 기본적으로 비닐(PVC-PE비닐-천연비닐)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또 세라믹을 사용하거나 연못 주변에 방수벽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분수 형태는 아주 작은 것부터 규모가 큰 것 등 매우 다양하다. 펌프관이 길어지면 당연히 수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분수 수압에 맞는 펌프를 설치해야 한다.

펌프는 연못용, 분수용, 수질정화용 등 용도에 따라 다르다. 큰 연못은 수영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연못 주변에 수질 정화 기능이 있는 수생식물들을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못과 분수 주변에는 조명을 설치하면 더 효과적이다. 밤에도 정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미니 수영장 만들기



일반 연못의 경우 비닐의 두께는 1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영이 가능한 연못은 1.5mm 이상이어야 한다. 비닐을 깔기에 앞서 지면 상태를 고르게 해줘야 한다. 만일 바닥에 돌 같은 것이 있으면 찢어지기 쉽기 때문에 방수천을 먼저 깔고 그 위에 비닐을 얹어야 한다.

비닐을 자를 때에는 크기 보다 다소 여유있게 잘라야 한다. 이유는 연못에 물을 넣게 되면 비닐이 연못으로 더 팽려들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이 다 찬 후에 남은 비닐을 잘라줘야 한다.

또 물을 다 채운 뒤에는 독 부분을 잘 마무리해줘야 한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연못과 독 부분이 자연스러운 모양을 하고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독 쪽에 있는 흙이 물을 흡수하는 모세관 현상을 보이기에 가장자리 마감시 돌을 얹고나서 방수비닐을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세워주는 게 좋다. 이후 방수비닐 위로 포석을 올려놓으면 미관상 좋고, 비닐이 안으로 팽려 들어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수영장 연못은 방수비닐이 휩쓸려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 금속형 레일을 설치해준다.

연못 작업시 배수시설인 하수관 매설은 물론 조명 설치를 위해 땅속에 전기 배선 작업도 해줘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연못을 만들 경우 연못정화필터장치를 설치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못 물이 탁해지고 심할 경우 녹조현상까지 나타난다.

연못정화필터는 연못내 물이 펌프-관-스펀지를

거치면서 물때와 미세한 입자를 흡수해 준다. 연못 정화필터는 대부분의 수영장이나 금붕어를 키우는 연못에 설치되고 있다.

또 연못 위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걸러내기 위해 연못 가장자리나 중간에 하수구 구멍 같은 것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일정한 물의 흐름이 생겨 구멍 쪽으로 부유물이 모이게 돼 제거가 쉽고 물의 정화 기능도 높아지게 된다.

위아래로 연결된 연못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 흐름이 잘 되도록 높낮이를 잘 조절해야 한다. 시냇물 같은 작은 개울물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자연석 등을 잘 배치해야 하고, 돌 사이사이에 적당한 식물을 식재해준다.

연못-분수 주변에 잘 어울리는 조형물들



연못이나 분수 조경시 돌과 식물 외에 다양한 형태의 오브제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정원의 조형미를 한층 부각시킬 수 있다.

이 때 시각적으로 화려함을 좇기보다는 정서적-감성적 측면의 배려가 요구된다. 조형물은 정적인 정원에 시각적 흥미를 유발시키고 생동감을 주지만 지나치게 많은 조형물은 오히려 산만하게 할 수 있다.

정원을 식물로만 꾸미기보다는 조형물과 점경물 등을 배치해 단조로움을 보완해야 한다. 보다 아름답고 정서적인 정원으로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식물을 늘어놓거나 일자로 배열하기보다는 기리

끼리 모아심기를 해주거나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것이 심미감을 높여준다. 자연석을 사용해 나무와 돌, 물이 잘 어울리게 한다면 작품성을 더 높일 수 있다.

또 화단 구석구석을 맨땅으로 놔두기보다는 천연 이끼를 사용하고 마사를 이용해 피복을 해주면 정갈하면서도 운치있는 화단을 꾸밀 수 있다. 따라서 식물선택에만 집착하지 말고 조각물이나 분수 등의 장식 소품을 잘 활용할 경우 식물의 수를 줄이는 이점이 있다.

토기, 항아리, 고가구 등을 활용해 포인트를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석재, 도기, 철제 등도 좋은 소재가 된다. 물이 담겨 있는 물확은 분위기를 정숙하고 차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한국식 정원 조경에 많이 사용되는 석등은 정적인 분위기 연출에 그만이다.

식재되는 식물에 적합한 조형물을 선택한다. 난과 식물의 경우 나무의 뿌리나 등치, 금속 재질의 조형물이 잘 어울리고 다육식물의 경우 검정색 계통의 돌이나 녹슨 고철 등이 조화를 이룬다. 초화류는 밝은 색을 띤 자연석이나 백색 계통의 화강석, 약간 마른듯한 느낌의 나무를 곁들여주는 게 효과적이다.

양치식물은 축축한 나무-유리와 어울리고 수생식물은 유리나 아크릴 화기와 궁합이 맞는다. 보다 능숙한 조경가라면 연못 주변 환경도 디자인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연석을 사용해 자연 그대로의 운치를 재현할 수 있고, 열대지방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열대우림 천연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 해고 등의 재료를 사용한다. 경계목과 인조목 등을 이용해 경계를 만든다.

이밖에 펜스와 데크, 건물벽면에 부착하는 트렐리스(Trellis), 벤치, 벽천(壁泉) 등의 조경시설물도 정원 분위기를 살려주는 좋은 소재다. 🌿